

KT, IPTV 개인화 서비스로 유료방송 합산규제 넘는다

IPTV '3대 혁신 서비스' 공개
시청이력 분석... 취향별 콘텐츠
셋톱박스, 초소형·저전력·저발열

집에서 가상현실(VR)로 주문형비디오(VOD)를 보고, 가족구성원의 취향에 따라 채널을 골라볼 수 있게 됐다. 무선 셋톱박스는 기존 제품의 5분의 1 크기로 줄어들었다. KT의 인터넷TV(IPTV)를 통해서다.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온라 인동영상서비스(OTT)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KT가 IPTV 3대 혁신 서비스를 발표했다. 미디어 이용 행태가 개인 중심으로 변하는 점에 주목, 개인화 서비스로 IPTV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전략이다.

KT 구현모 KT 커스터머&미디어부문장 사장은 4일 서울 광화문 KT스퀘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통적인 가구 단위 서비스로 인식해왔던 '올레



기자간담회에서 KT 커스터머&미디어부문장 구현모 사장이 '슈퍼 VR tv'와 초소형 무선 셋톱박스 'UHD 4'를 소개하고 있다. /KT

v'가 개인화라는 미디어 트렌드에 맞춰 새롭게 혁신할 때"라며 "KT가 가진 역량과 IPTV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 미디어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구현모 사장은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에서 경쟁사가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케이블TV에 눈을 돌리고 있는 등 유료방송 성장이 어렵냐는 걱정이 많다"며 "KT는 개인화에 성장 기

회가 있어 '올레tv'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 KT를 제외한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경쟁사는 각각 티브로드, CJ헬로와 M&A를 목전에 두고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지상파 방송사와 힘을 합쳐 통합 OTT 서비스 '웨이브'를 출시하며 유료방송 시장 구조 개편에도 나서고 있다.

시장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유료방송 합산규제로 케이블TV 인수에 나설 수 없는 KT는 IPTV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KT는 유료방송 1위 사업자로 다른 케이블TV를 인수하면 점유율 33%를 넘어 '합산규제' 영향을 받는다. KT는 IPTV '올레tv' 가입자 820만명을 확보하기도 했다.

KT는 우선 오는 12일 개인별 AI 추천 서비스를 도입한다. 올레 tv 'AI 큐레이션'은 1개의 IPTV에 최대 네 개의 계정을 제공해 구성원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집' 계정을 기본으로 두고, 개인별 계정을 3개까지 추가할 수 있다. 부모님, 동생 등 개인별 계정에 따라 각자 취향에 맞는 다른 콘텐츠를 추천받을 수 있다. 향후에는 흡소핑이나 광고 시청이력까지 데이터 분석 범위를 확대해 맞춤형 콘텐츠 추천을 정교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KT는 VR 환경에서 IPTV를 즐길 수 있는 '슈퍼 VR tv'를 출시했다. 슈퍼 VR tv에서는 180인치 와이드

맥스 스크린에서 21만여편의 VOD와 올레 tv의 270여개 실시간 채널을 실제 영화관에서 보는 것처럼 즐길 수 있다. 슈퍼 VR tv는 올레 tv의 실시간 채널과 VOD, 게임·스포츠 등 3000여편의 VR 전용 콘텐츠를 월 9900원(3년 약정, 복수회선 기준, 부가세 포함)에 이용할 수 있다.

국내에서 가장 작은 크기의 셋톱박스인 'UHD 4'도 오는 20일 출시한다. UHD 4는 국내에서 크기(57×89×23mm)가 가장 작고, 대기전력 소모가 가장 적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UHD 4는 인터넷 선과 전원 선이 필요 없다. 기가 와이파이만 있으면 집 안 어디든 원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이동해 설치할 수 있다.

이날 KT는 글로벌 OTT 업체들과의 경쟁을 위해 오리지널 콘텐츠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실제 최근 KT그룹은 디스커버리와 공동 제작 스튜디오 설립 등을 통해 콘텐츠 제작과 유통에도 나서고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원격 영상의 5G로 구현한다

LG유플러스-더블미, 공동개발
대용량 3D 홀로그램 실시간 제공

LG유플러스는 홀로그램 콘텐츠 제작 전문업체 더블미와 '5G 기반 실시간 텔레프레즌스'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텔레프레즌스'는 원거리에 위치한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각 참여자들의 모습을 홀로그램과 같은 가상현실로 구현하는 기술이다. 예를 들어 지방에 있는 직원을 홀로그램 영상으로 불러와 서울에 있는 직원들과 함께 원격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LG유플러스는 텔레프레즌스 구현을 위해 사용자와 근거리에 설치된 서버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모바일 엣지 컴퓨팅(MEC)'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MEC를 활용하면 약 1초당 20메가바이트(MB)의 데이터 전송 및 처리가 필요한 대용량 3D 홀로그램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또 홀로그램 콘텐츠의 품질을 높이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도 MEC 상에서



4일 서울 서초구 더블미 시연실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LG유플러스 이해성 미래기술개발그룹장 상무(오른쪽)와 더블미 김희관 대표가 3D 홀로그램을 살펴보고 있다. /LG유플러스

구현해 사용자가 텔레프레즌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컴퓨팅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더블미는 단 1대의 3D 카메라로 실시간 홀로그램을 생성할 수 있는 기술인 '홀로포트'를 제공한다. 홀로포트 기술은 인공지능이 피사체의 동작을 기계 학습으로 추론해 카메라로 촬영되지 않는 부분의 영상을 자동으로 보완할 수 있다. 지금까지 고품질의 3D 홀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많은 카메라가 필요했던 점이 개선된다. /김나인 기자

르노삼성, SM6 전용 '스카이뷰 카메라' 선보

르노삼성자동차가 SM6 전용 고성능 '3D-HD 360도 스카이뷰 카메라'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카메라는 기존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의 화각과 영상 화질을 대폭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차체 외부에 설치된 총 4대의 카메라를 이용해 마치 차량을 하늘에서 바라보는 듯한 시야를 실내 모니터 화면에 띄워주는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이다.

르노삼성은 이 카메라를 지난 8월 더뉴 QM6에 탑재한 데 이어 SM6에 확대

적용했다.

특히 기존 대비 3배 이상 향상된 100만 화소의 HD 해상도를 지닌 3D-HD 360도 스카이뷰 카메라는 보다 선명하고 깨끗한 화상을 제공해 차량 주변 상황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동일한 수준의 화질을 제공하는 HD 전방 카메라 적용 시 앞범퍼 및 뒷범퍼 주변 상황을 실내 모니터로 실시간 확인 가능하며, 복잡한 주행 및 주차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양성운 기자

한화시스템, 미사일 탐지 추적장치 1300억 계약

지난 9월, 5년간 1차사업 완료
성과기반 군수 도입 확대 추세

한화시스템은 1일 방위사업청과 1300억 원 규모의 천마 탐지추적장치 PBL(성과기반 군수지원) 2차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육군의 단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인 '천마'의 탐지·추적 장비에 대한 운용 유지를 위한 후속 PBL 사업 계약 건이다. 한화시스템은 지난 9월 고장 복구 기간의 획기적 단축과 가동률 향상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며 5년간 진행된 1차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바 있다.

최근 우리 군은 최신 무기 수요 증가에 따라 새로운 정비 인력, 시설 등 추가 정비 지원 역량을 확보하고 동시에 전

투 임무에 전념하고자 성과기반 군수(PBL)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한화시스템은 첨단 방산전자 R&D로 입증한 기술력을 종합군수지원시스템 분야로도 확대 적용 중으로, 방산 업계 최초의 운영 유지 전담부서인 MRO부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한화시스템 MRO부는 군이 작전 운용 시 최적의 장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 솔루션을 적시 제공해 군과 업체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현재 해군 함정전투 체계에 대한 수명주기군수지원 2차 사업, K계열 전차용 사격통제장비의 PBL 사업 등 총 3000억원 규모의 MRO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김연철 한화시스템 대표이사는 "천마 PBL 1차 사업 성과를 2차 사업으로 이어가며 우리 군의 완벽한 전투 준비



단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천마'

태세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핵심 고객인 군의 입장에서 서서 관련 인력과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군수지원업무를 수행해 나감으로써, 이상적인 민군 협력 모델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현대로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국내 첫 선... 품질·편의성 강화

역간 거리 짧은 국내 철도환경 적합
별도 동력차 없이 모든 차량 객실

동력장치가 차량마다 배치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가 국내에서 처음 나왔다.

현대로템은 4일 창원공장에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EMU-250'을 첫 출고했다고 밝혔다. 동력분산식 고속열차는 동력장치가 열차 맨 앞과 뒤쪽의 동력차에만 달린 동력집중식과 달리 차량마다 아래 쪽에 분산 배치된 차량이다.

특히 동력분산식 고속열차는 가감속 성능이 뛰어나 곡선선로가 많고 역간 거리가 짧은 국내 철도환경에 효율적인 차량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동력집중식 고속열차와 같은 별도의 동력차 없이 열차의 모든 차량이 객실로 구성되기 때



현대로템이 제작한 EMU-250.

문에 승객 수용능력도 우수하다. 동력분산식 고속열차는 글로벌 고속열차 시장에서 대다수의 발주량을 차지할 정도로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 잡고 있다.

EMU-250은 최고속도 260km/h에 6량 1편성으로 구성되며 좌석수는 편성당 381석이다. 10량 1편성인 KTX-산천보

다 4량이 적지만 좌석은 18석이 많다.

또 일반실과 특실 모두 좌석별 개별 콘센트, USB 단자, 스마트폰 무선충전 시스템이 설치돼 승객 편의성이 강화됐으며 특실에는 멀티미디어 시청용 개별 모니터가 적용돼 일반실에 비해 보다 향상된 편의시설을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역사 플랫폼의 높이에 상관없이 승객들이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고저상 플랫폼 겸용 승강문을 적용해 승객 탑승 편의성도 강화했다.

EMU-250은 현대로템이 2016년 코레일로부터 114량을 수주한 것으로, 내년까지 납품 완료 예정이다. 'EMU-250'은 경전선, 중앙선, 서해선, 중부내륙선 등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성운 기자